



第12回 發明教室 了

2月 9日, 成功事例 등 發表

- 本會는 지난 2月 9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12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發明에 關心을 가진.....○
- 많은 아마추어 發明家들이 參席하여 發明家들의 成功事例를 聽取하고 질.....○
-의 응답을 통하여 아이디어 開發에 대한 知識을 넓히고 問題點을 討論하.....○
-는 機會로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參席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發.....○
-明教室에서는 鄭泰連辨理士의 講議에 이어 誠信化學 孫昌現 대표와 공병.....○
-우타자기 이윤은 사장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工業所有權 전반을 紹介하.....○
-는 슬라이드 방영이 있었다.○

보일러 관석방지 조성물

誠信化學 代表 孫昌現

「보일러 관석방지 조성물」이라는 생소한 화학약품개발에 13년을 바친 집념의 사나이가 있다.

일명 청관제(淸罐劑)로 불리우는 보일러 관석방지 조성물은 보일러와 파이프내부에 생기는 스케일(Scale)을 방지하여 열손실을 막아주는 화학약품으로 孫사장은 이 화학약품 개발에 손댄지 13년만에 중소기업 사장으로 발돋움했다.

발명으로 성공한 또 하나의 좋은 예이다.

孫사장이 보일러 관석방지 조성물과 인연을 맺은것은 지난 72년. 당시만해도 우리나라는 보일러 관석방지 조성물의 불모지나 다를바 없

었다.

당시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孫사장에게 대만 교포가 보일러 관석방지 조성물의 제조·판매를 건의해 왔고, 孫사장도 선뜻 받아들여 의외로 손쉬운 출발이었다. 그러나 손쉽게 출발한 만큼 손쉽게 끝나 버렸다. 생산된 제품의 질이 형편없었기 때문이었다.

73년 드디어 孫사장은 독자적인 제품개발에 착수, 10년만인 82년 특허를 출원하여 84년 4월 등록(특허 제16805호)을 마쳤다.

연구와 사업을 병행하여 성신화학도 가내공업 수준을 벗어나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연간 매출액 1억으로 지방엔 대리점도 설치할 만큼 성장했다.

그러나 孫사장의 가장 큰 걱정은 제품판로 개척이 어렵다는 것. 보일러 관석방지 조성물이

생소한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제품의 대량 소비처인 기업들이 국산이라해서 거들며 보지도 않는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孫사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늘도 판로개척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미 또 하나의 특허를 출원하여 외제 못지않은 제품으로 탈바꿈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신제품 생산의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孫사장은 앞으로 계속 품질향상에 주력하여 정부의 에너지절약에 기여함은 물론 발명가도 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하늘같은 포부를 펼쳤다. ☺

한글·영문 겸용 타자기

공병우 타자기 대표 이윤은

타자기 개발에 반평생을 바친 이윤은 사장은 『명예 타자석학』으로 불리운다.

1946年 우리나라 최초의 3벌식 타자기를 발명한 공병우 박사가 설립한 공병우 타자기의 연구실장을 거쳐 82年 동사 사장이된 이윤은 사장은 타자기가 자신의 전부라고 서슴없이 말할만큼 타자기외의 것을 생각해 본적이 없다.

이윤은사장은 한영겸용 BALL타자기를 국내 처음으로 발명(특허 제5586호)한 것 외에도 BAR식 한영겸용타자기를 연구한 결과 1개에 글쇠에

3개의 CHARATERS를 수용하는데도 성공하였다. 이것이 성공하므로써 44개의 한정된 글쇠에 132개의 CHARATERS를 수용하여 한글과 영어의 대소문자를 수용할 수 있는 타자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또 1개의 글쇠에 3개의 문자를 수용하려면 별도의 SHIFT장치가 필요하게되어 한영겸용타자기의 3단 SHIFT KEY에 있어서, 2단 고정 SHIFT 장치(실용신안 제16158호), 3단 SHIFT장치(실용신안 제23263호), 한영겸용 3단타자기의 2단 고정장치(실용신안 제26539호), 한영겸용타자기의 부동 KEY 동·부동장치(실용신안 제25695호), 전동 BALL타자기의 한영겸용을 위한 BALL타자기의 동·부동장치(실용신안 제16802호), 등도 고안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수동·전동 한영겸용타자기가 개발되어 생산 시판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요.』

이윤은사장은 『한영겸용타자기는 한글과 영문이 혼합되어 있는 문장을 타자할 때 타자용지를 끼우고 빼는 단점을 해소하여 혼용비율에 따라 4~7배의 능률을 올리게 되었다』며 이로 인한 비용 절감으로 『글자기계화』에 기여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윤은사장은 또 지금까지 타자기 발전에 몸바쳐 온 것처럼 남은 생애도 타자기 발전에 바칠 것이라며 굳은 결의를 보여주었다. ☺

◎ 事務室 移轉案内 ◎

田峻恒 特許法律 務所

1. 移轉年月日 : 1985年 1月 28日(月)
2. 電話番號 : 事務室 568—5886/7(從前과同一)
自 宅 553—3266
3. 事務室 移轉場所 :
서울特別市 江南區 驛三洞 809-8
(南英빌딩 301號)